비좁아서 '끙끙'

널찍해서 '수월'

2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에 주차한 이용객이 힘겹게 차량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반면 법정 규격(2.3m)보다 너비를 70㎝ 늘려 주차구획을 새롭게 조정한 이마트 상무점에 차를 세운 이용객은 차량 문을 열고 손쉽게 나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 커졌는데 주차면 좁아…앗車車 순간 '문콕'

주차장 규격 수십년째 그대로…승하차 불편에 갈등 불러
너비 1.86m 소나타 주차 후 하차 여유 공간 20㎝ 불과
대형승용차 급증 속 대형마트·아파트 등 주차면 넓혀 호응

승용차는 커지고 외제 승용차 수는 늘어나는데 주차장 주차구획(주차면) 기준은 수십 년째 그대로여서 불편은 물론 이웃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법정 주차면 너비가 현실을 못 따라가다 보니 대형마트, 아파트, 복지시설 일부는 주차면을 넓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고 '문콕사고'를 예방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다.

◇차는 커지는데, 주차면 너비는 26년째 2.3m=현행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면 규격(일반형)은 너비 2.3m, 길이 5.0m로 지난 1990년 개정된 이후 변화가 없다. 지난 2012년 7월 이후 건설하는 주차장은 2.5m×5.1m의 확장형 주차면을 30% 이상 설치하도록 했지만, 주차장 상당수가 이미 건립된데다 중대형 및 외제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09년 7만8947대이던 2000cc 이상 중·대형 승용차 수가 올해 6월 현재 13만7779대로 57.2% 늘었고, 외제 승용차도 같은 기간 7647대에서 3만6730대로 208%나 급증했다. 너비 2.3m, 길이 5.0m인 현형 주차면 규격에 차량 너비(전폭)가 1.86m 인 소나타를 주차할 경우 양쪽 문을 겨우 20㎝ 정도 열 수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문콕사고'도 빈번하다. 현대해상이 지난해 내놓은 '주차장 사고 특성 분석'에 따르면 문콕사고 보험처리 건수는 지난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콕사고가 비교적 가벼운 사고임을 감안하면 경찰·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례는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하늘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일부 아파트는 "차량 대형화로 (주차면이 좁으니) 문콕사고 예방을 위해 승하차는 통로에서 한 뒤 주차해달라"고 안내문을 내걸거나 수시로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웃 간 갈등을 막고 있다.

◇일부 시설…불편 줄이려 주차면 넓혀=주차구획을 규정한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상업시설, 공동주택, 복지시설 일부는 스스로 주차면 조정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이마트는 2년 전 지하 주차장 4개 층 가운데 1, 2층 주차장의 주차면 너비를 2.3m에서 3m로 대폭 넓혔다. 커지는 차량, 여성 운전자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였다. 주차면 조정에 따라 보유 주차면의 수는 450면에서 380면으로 줄었지만 문콕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용객들이 단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는 훨씬 커졌다는 게 마트 관계자 설명이다.

남구 봉선동 쌍용아파트도 4년 전 주차면을 넓히는 작업을 했다. 324면이던 지상 주차장을 303면으로 줄여서 각 주차면을 20㎝ 늘린 것이다. 복지시설인 광주빛고을노인건강타운도 운전이 서툰 노인들이 주 이용객임을 감안해 조만간 주차면 너비를 조정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반면 법에서 정한 만큼만 주차면을 확보한 아파트나 시설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 수를 줄여 주차공간을 넓히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문콕사고를 비롯한 주차장 갈등, 불편 사례는 차량의 대형화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면서 생겨난 것으로 옆 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공간을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한다"면서 "확보된 주차면 수가 여유가 있다면 주차면 수를 줄여 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지법 "5·18 시민군 동참 정당행위"
재심에서 사망 28년만에 무죄 명예회복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활동에 동참했다가 총기 등을 탈취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고인이 수십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내란실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김모(1988년 사망 당시 40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공소장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밤 9시 30분께 화순읍 화순군청 앞 광장에서 5·18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트럭을 몰고 "김대중 석방하라", "계엄 해제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차량 시위를 했다.

김씨는 앞서 예비군용 칼빈소총을 탈취해 소지했으며 다음날 새벽까지 차량시위를 하며 경찰서와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김씨는 내란실행 혐의로 체포돼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의 유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12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이자 형법상 내란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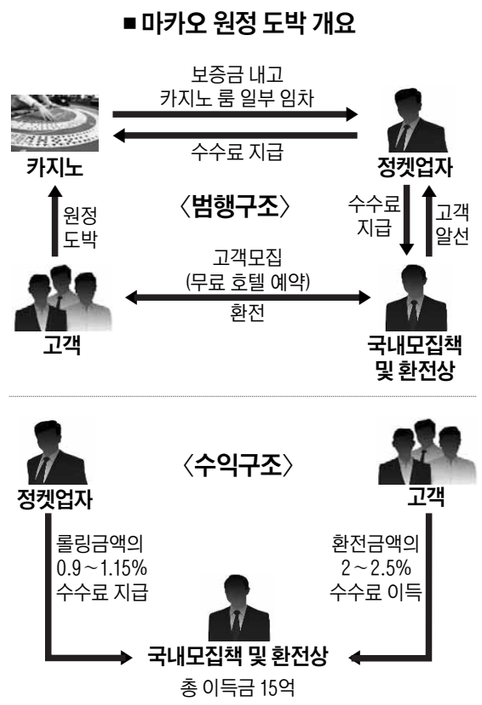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소화기·감지기 설치해야

전남도소방본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2012년 2월5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는 가구당 1대씩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한 개를 부착해야 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직 공무원·방송사 간부·중소기업 대표 등
500억대 마카오 원정도박 무더기 적발



전직 간부 공무원, 경기지역 방송사 간부 등이 조직폭력배가 개설한 마카오 도박장에서 500억원대 도박판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마카오 카지노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환전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A(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역 조직폭력배이자 도박장을 개설한 실제 업주 B(40)씨를 출국금지조치하고 수배 중이다.

검찰은 또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상습도박 등)로 전직 공무원, 중소규모 업체 대표 등 8명과 회사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불법환전해준 금융투자회사 간부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달아난 B씨 주도 아래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마카오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룸을 빌려 도박장을 개설하고 한 판에 수억원의 판 돈을 걸고 블랙잭과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검거된 도박개설업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통장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도박 판돈이 모두 5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A씨 등 도박장 개설업자들은 '정켓(junket)' 업자(카지노와 계약을 맺어 일부 VIP룸 사용 권한을 받은 업자)로부터 룸을 빌려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뒤, 카지노로부터 손님의 베팅에 따라 받는 수수료인 '롤링' 일부를 받고 도박자에게 불법 환전을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1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직 공무원과 중견기업 대표, 은행 직원, 방송사 간부 등 8명은 수차례에 걸쳐 한 판당 6000만원에서 7억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투자회사 간부 E(41)씨는 회사자금으로 52억원 상당의 불법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자살 검사' 폭언·폭행한 부장검사 해임하기로

검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의혹이 제기된 상급자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키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김 부장검사의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총장은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5월19일 자택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배달 도와주다 순간 욕심에…다방 주인 금팔찌 슬쩍

쌍나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업주의 배달일을 도와주다가 욕심을 참지 못하고 차량에 보관 중이던 수백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29)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다방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B(여·34)씨의 순금 팔찌(25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A씨는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다방에 놀러왔다가 배달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경찰은 "B씨를 특정 장소에 내려준 A씨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우연히 금팔찌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6. 8. 8(월) ~ 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 ~ 25(목)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수업연한)	학 과	모집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지원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 · 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 · 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062)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